

광주시 하루 새 19명 신규 확진...누적 500명 육박

한 달째 동시다발 집단감염... '감염원 미상' 도 늘어 말바우시장발 감염 '불똥' ...전남 시·군 주민도 검사

광주에서 하루 사이에 1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환자가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

준으로 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이미 공개된 10명을 포함하면 하루에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이다. 감염원도 시장발집, 청소용역, 감염원 불명, 성림침례교회 등으로 다양하다.

북구 오지동에 거주하는 광주 453번 확진자는 시장발집 관련자로 광주 420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산구 도천동에 거주하는 광주 457~459번 확진자 등 3명도 시장발집과 관련한 사람들로 광주 447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시장발집 관련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이곳에서만 23명의 집단감

염이 확인됐다. 북구 두암동에 사는 광주 454번 확진자는 청소용역 관련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 456번·460번·461번 확진자는 성림침례교회 관련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았으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북구 문흥동 주민인 광주 455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날까지 광주지역 확진자 중 감염원 불명은 27

명으로 전체 확진자 5.85%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발집에서 시작된 코로나19 'h자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인근 전남지역 시·군도 감염 우려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곡성·나주·화순·장성 등 광주 인근 전남 시·군 주민들이 말바우시장을 많이 이용해 지난달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시장을 방문한 도민을 상대로 무료검

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담양 4명, 곡성 7명 등 11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담양 시외버스는 광주 노선이 있어 조사를 통해 검사할 예정이다. 광주시도 10일까지 시장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1,187명이 검사를 받아 1,14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2명은 검사 중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22일부터 9월 4일까지 말바우시장을 다녀온 사람이 검사받도록 재난 문자발송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시·도 공모사업 '눈에 띄네'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은 화순전남대병원 인근백신산업특구 일원에 국비 230억원이 투입돼 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임상,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곳에는 오픈이노베이션 연구실형실, 참여기업 입주실, 동물실험시설, 첨단연구장비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 전남도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376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20억원), 농촌신활력 플러스(196억원), GRAND ICT 연구센터(150억원),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132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105억원), 1차 에너지기술개발(100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현재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형 공모사업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공모사업 중 17개 사업(국비 4,632억원)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그린뉴딜·농수산 등을 중점 대응분야로 선정하고 ▲해상풍력 단지 개발 ▲목재친화형도시 조성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농촌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모 추진을 공략해왔다.

공모신청에 대비해 신규 사업지구 발굴과 함께 사업계획 컨설팅도 실시한다. 중앙부처·국회 동향 파악, 사업부서와 지원사항 협의 등을 통해 공모사업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모사업 선정 실적은 지자체의 장기적 발전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현안사업 안정적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19와 인구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 외부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공모사업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 고용·소득보합제도 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법안 발의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할뉴스

광주 PC방 영업 가능...편의점·제과점은 '제한'

실외 골프연습장 제한...확진자 종교시설 등 '집합금지'

광주시가 '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그동안 영입이 금지된 PC방은 영입이 가능해졌다. 술집과 카페 영입이 제한되면서 '풍선효과'로 사람이 물리는 문제가 제기된 편의점과 제과점은 영입이 제한된다. 광주시는 '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면서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11곳과 시가 지정한 9곳의 영입(집합)을 금지했다. 유흥주점·볼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한티포차·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뷔페·방문판매장은 그대로 영입이 금지된다. 공연장·야구장·축구장·목

욕탕·멀티방·DVD방도 영입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대상이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종교시설도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온라인 예배만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물리는 300인 이상 대학원과 놀이공원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으로 묶여 있던 PC방·게임장·오락실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입이 가능한 집합제한으로 하향했다. 다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고 음식 판매와 섭취는 금지되는 조건이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기원은

새롭게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시설·경로당·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이 중단된다.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키즈카페·견본주택은 10인 이상은 모일 수 없도록 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조건부 영입'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은 기존 14곳에서 6곳이 추가됐다. 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은 실내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지역감염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인력과 예산 등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영입 일체의 판용 없이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전남, 중국서 유입 비열구 급증 '비상'

긴 장마·태풍 영향 유입량 증가

최근 전남지역에 중국에서 날아와 비에 피해를 주는 비열구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 방재에 비상이 걸렸다. 9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비열구는 매년 6월 하순부터 장마전선·태풍 등 저기압 통과 시 우리나라에 유입돼 2~3세대를 경과하며 발생밀도는 9월에 가장 높다. 특히 올해는 중국 내 비열구 발생이 많았고, 유래없이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국내 유입량이 증가했다. 또한 8월 고온으로 세대가 짧아짐에 따라 최근 발생량

이 급증하고 있다. 비열구는 주로 벼 포기 아랫부분에 집단 서식하며 벼대의 즙액을 빨아 먹는다. 피해를 받은 벼는 잎집이 누렇게 변하고, 벼 알수가 적어지며 피해가 심할 경우 벼가 완전히 말라 죽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1일까지 중점방제기간으로 설정하고, 비열구·혹명나방·도열병 등 최근 벼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남균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발생이 많은 지역은 방제를 서두르지 않으면 수확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기방제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광주 거리두기 준 3단계 유지

'방역중점관리시설'에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300인 이상 대학원 등 정부 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종교시설·기원·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집단체육활동, 목욕탕·사우나 등 광주시 자체 지정 9개 업종을 포함해 총 20개 업종이다. 시는 이 업종들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연장됐다. 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제과점·실외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을 타 시설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추가했다.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된다. '집합금지' 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그동안 확진자가 전혀

발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이 시설들이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곧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는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지역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준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앞으로 10일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사람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매광고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임·매매·부동산·광고·영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000@hanmail.net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매각공고
1. 입찰내용: 발표암 매각
2. 매각물건의 표시
가. 적지장위치: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235-15 (보성·임성리 6공구 현장)
나. 매각예정수량: 40,102㎡ (자연상태)
3. 입찰방법: 일괄 매각 입찰
4. 현장설명: 생략(문의 061-463-6630)
5.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등록 마감일: 2020년 09월 15일(화)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0년 09월 15일(화) 15:00.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주소: 전남 영암군 서호면 정영리 605-1번지)
6. 입찰참가자격
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견적서를 시한 내에 제출한 자
나. 골재채취업, 골재선별 및 파쇄인 허가/등록, 비금속 광물 분쇄를 생산업을 통하여 업을 영위하는 자
다. 국제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규정에 의함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 기 암매각 관련 협약 위반업체 제외
마. 동 사업구간 낙찰금액 확인 및 동등 이상 제시금액 업체 입찰 참가 허용
바. 입찰일 현재 당 현장 내에서 운반중정승인 업체는 제외
사. 판매(영암군)에 아직까지 미처리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발표암 매각금액 등 경제성 검토결과로 낙찰자 선정
나. 경제성 검토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기한 이내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후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8. 기타 특약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해야 함.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적서 제출시 같이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반출 전 매 20,000㎡ 마다 낙찰금액 선납 후 반출하여야 함.
라. 상차, 운반, 안전, 환경, 민원관리 관련 인허가 비용은 수요처 부담으로 견적하여야 함.
마. 운반관련 차량은 반드시 세척 후 출차하여야 함.
바. 적지 후 반출 요구시 즉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암반력 처리시 불순물 처리비용을 포함한다.
아. 1일 발표암 1,000㎡ 이상 반출하여야 함.
자. 상기 매각예정수량은 발주처 및 현장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발표암 반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성·임성리 제6공구 건설사업관리단 (☎ 070-4458-2953)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담당자 (☎ 061-840-5132)
2020년 09월 10일
국가철도공단
KOREA NATIONAL RAILWAY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입팀 / 채권추심팀
정리·변의 법원사준서 시간외호출
> 지사오피 상담 <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영암군 공고 제2020-1343호
영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내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불일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0일
영암군수
1. 군관리계획 입안내용
가. 위 치: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대불배후주거단지 일원
나. 결정(변경)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불임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0. 9. 10. ~ 9. 24. (14일간)
나. 공람장소: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4.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가. 제출기간: 공람기간 내(2020. 9. 24 까지)
나. 제출장소: 공고된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영암군청 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061-470-2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대신(이하 "갑")과(약) 주식회사 대신이엔지(이하 "을")는(은) 2020년 9월 9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상법 제3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 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0일
"갑" 주식회사 대신
전라남도 담양군 대정면 추성1로 511
대표자 사내이사 양시중
"을" 주식회사 대신이엔지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도개길 47
대표자 사내이사 윤성권